

“잘 있다 또 만나요”...가족 情 품고 다시 일상으로

추석 연휴 끝자락 귀경행렬

송정역·터미널 북적...양손엔 음식·선물
아쉬움에 눈물도...공항은 여행객 '활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긴 연휴가 짧게 느껴지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에 광주 송정역은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후 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양손에 음식과 선물 꾸러미를 든 이들은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이별의 아쉬움을 대화로 달랬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나온 일부는 미처 다하지 못한 인사를 영상통화로 대신하며 마음을 전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한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은 채 “이쁜 내 새끼~”라며 장난스레 말을 건네서운 마음을 감췄고, 한 부모는 자녀의 캐리어를 들어주며 플랫폼까지 동행했다.



9일 오전 광주송정역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서울행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이연상 수습기자

잠시 후 열차가 들어서자 “몸조심하고 잘 지내요”,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또 보자”, “잘 계시오

설 연휴때 배요” 등의 인사가 오갔고, 귀경객들은 차례로 열차에 올랐다. 부모들은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선호(32)씨는 “일이 불규칙해 자주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번엔 일정이 맞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연휴가 길어 여유롭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함께하니 순식간에 지나갔다. 아쉽지만 재충전한 만큼 일상을 힘차게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들을 배웅한 이장영(80대)씨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들다”면서 “10여년간에 3-4일 같이 있어 좋았는데 다시 올라간다니 마음이 허전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비슷한 시각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역시 귀경객과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짐가방과 음식 꾸러미를 든 채 버스를 기다렸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기 전 한 귀경객이 부모를 향해 “휴가 때 내려올게요”라고 인사하자, 어머니는 “일도 바쁘면 뭐하러 오냐. 가서 열심히 하고 항상 건강 조심해”라며 손을 흔들었다.

같은 날 정오께 광주공항은 연휴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다녀온 이들과 비행길에 오르는 여행객들로 활기를 띠었다.

캐리어와 팔코백, 선글라스를 챙긴 이들은 전광판을 확인하며 탑승 수속을 밟았고, 일부는 제주의 햇살 등을 검색하며 즐거워했다.

부모와 함께 제주에 간다는 김승연(30대·여)씨는 “차례상 준비와 성묘 등으로 고생한 부모님께 휴식을 드리고 싶어 일요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떠난다”며 “좋은 시간,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3박4일간의 제주 여행에서 돌아온 김미화(50대·여)씨는 “시골에 다녀온 뒤 가족과 제주도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충분히 쉬었으니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웃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추석 연휴 7일간 약 234만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찾았고, 20만여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설 대비 12만여명이 증가했다.

/주성학 기자, 이연상·윤찬용 수습기자

제주항공 유족, 무안공항서 합동차례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추석 당일인 6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공항 1층 회생자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

참사 282일째이자 사고 이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 100여명은 합동 차례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명절이 다가오면 유가족들이 올 곳은 공항밖에 없다”며 “합동차례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돼 그리움·사랑·진심을 밝혀준다는 다짐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 차례를 마친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활주로 안로컬라이저 앞에서 LED로 만든 유등을 켜는 추모 행사를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승무원)은 기체 꼬리 쪽에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무안국

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과 만나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법과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구례 휴게소 SUV 추락...나무 걸려 무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산 밑으로 추락했지만 나무가지에 걸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27분께 구례군 시암재 휴게소 주차장에서 “산 밑으로 차량이 떨어졌다.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소방서와 산악구조대는 산 밑 나무에 SUV 차량이 걸려 있는 모습과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방은 장비 6대와 인원 19명을 동원해 차량 내부에서 70대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구조했다. 소방 당국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국은 해당 차량이 휴게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산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재영 기자

북구 중흥동 지하철 2호선 인근 건축물 안전 '빨간불'

市, 지난 4월 균열 신고에 긴급 점검
E등급 11곳·D등급 2곳...18세대 36명
문인 청장 “결과 통보 지연, 주민 위협”

광주 북구 중흥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택들의 안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7월21일부터 9월1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인 광주역 뒤편과 중흥삼거리 부근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후 일부 건축물들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난 4월에는 붕괴 위험에 주민 6명이 임시 숙소로 대피하기까지 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건축물의 현 상태와 안전 등급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13개소 중 11개소가 E등급(불량)이 나왔다. 나머지 2개소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진단됐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1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받은 북구는 2일 해당 건축물에 거주 중



광주 북구 중흥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택에 '통행 주의'를 알리는 팻말이 부착돼 있다. 중흥삼거리 일대 13개 건축물은 광주시의 긴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D·E등급을 받았다. /연합뉴스

인 주민 18세대 36명에 긴급 대피를 안내했다.

북구는 이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려 했으나, 주민 대부분은 추석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연휴가 끝나는 데로 별도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인 북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며 “광주시는 지난달 18일자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고도 무려 2주가량 뒤인 10월1일에서야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구에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장은 “그 사이 주민 대피와 같은 최소한의 긴급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전달받은 후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는지 30일까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